

# 전북현대 김상식 전 감독 베트남 국대 사령탑 되나

축구계 "베트남 측과 김 감독이 이야기 나눠 아직 확정은 아니다... 세부 조항 남아있어" 박항서 전 감독 이은 한국인 지도자 가능성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를 지휘했던 김상식 감독(사진)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계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베트남 측과 김 감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은 아니다. 계약 기간도 보도되고 있으나, 세부 조항이 남아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마지막 작업이 잘 이뤄진다면, 김 감독은 과거 박항서 전 감독이 이어 베트남 축구를 이끄는 한국인 사령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감독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 성인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을 겸임하면서 각종 국제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 베트남의 히딩크, 이른바 '쌀딩크'로 불렸다.

이후 박 전 감독과 결별한 베트남은 지난해 2월 전 일본 대표팀 감독 출신인 필리프 트루시에 감독을 선임했다.

하지만 트루시에 감독 체제에서는 박 전 감독 시절만큼의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F조 4차전에서는 0-3으로 패배하는 등 크게 부진했다.

결국 베트남 축구협회는 성적 부진을 이유로 트루시에 감독과 결별했다.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베트남 측은 전북에서 K리그 우승, 코리아컵(당시 FA컵) 정상,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4강 등의 성과를 남긴 김 감독을 유력 후보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감독이 이번에 베트남 지휘봉을 잡게 되면, 지난해 5월 전북을 떠난 이후 약 1년 만에 현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된다. /뉴시스



'2연패' 트로피에 입 맞추는 하나 그린

하나 그린(호주)이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워셔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입 맞추고 있다. 그린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로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 “초등 1~학년 체육교과 분리 결정 환영”

문체부 “유소년기 학생 체력·건강 증진 기여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9일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움 생활’ 통합교과에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해 학생들의 다양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40년 만에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지난 28일 음악·미술·신체활동이 통합된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움 생활’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최근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줄면서 기초체력이 감소하고 비만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체육 교과 분리 결정을 계기로 문체부는 학교체육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을 토대로 초등학교 1~2학년 발달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향후 늘봄학교와 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초등교사의 체육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교육 강화, 체육 전담 교사 확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경기를 펼쳤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변산해수욕장을 출발하여 변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새만금 방파제를 배경으로 달리는 2023 부안 해변마라톤대회가 펼쳐져 2,000여명의 건각들이 각축을 벌였다.

이밖에도 협회장배 파크골프 대회와 군수배 당구대회도 펼쳐져 주말 부안 곳곳에서 풍성한 체육행사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온기를 불어넣었다. /부안=김성진 기자

## 부안 곳곳 체육행사 성료

봄의 기운이 가득한 봄날에 부안군 곳곳에서 다양한 체육행사가 풍성하게 열렸다.

먼저 제8회 붉은노을 전국배드민턴대회와 제6회 부안 마실배 동호인테니스대회, 제8회 부안군 마실배 볼링대회가 지난 27~28일 부안군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부안군을 찾아 치열한

## 익산시청 육상팀, 실업 최강 명성 잇는 중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서 금2·銀2 싱가포르 오픈 육상대회서는 銀 2개 아시아 U-20 육상경기서도 銅 1 획득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이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실업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이달 차례로 열린 3개의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지난 25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KFT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 출전한 익산시청 팀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로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참가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세단뛰기 국가대표 유망인 선수와 1500m에 출전한 김용수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고, 원반던지기 신유진 선수와 해머던지기의 황미르 선수는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달 27까지 두바이에서 열린 아

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에 출전한 팀의 막내이자 국가대표 해머던지기 김태희 선수는 현지의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아울러, 원반던지기 국가대표 신유진 선수는 지난 19일 막을 내린 싱가포르 오픈 육상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시즌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올 시즌 전초전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국내 대회들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며 이번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선전을 펼쳐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이번 성과는 익산시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수단의 좋은 활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순창여중, 소프트테니스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

광주신광중 2대 0으로 제압... 전국단위 우승 쾌거

순창여자중학교(교장 이한운) 학생들이 최근 해남군 우슬 소프트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60회 한국고등학교 소프트테니스연맹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강민석 감독과 강영순 코치를 중심으로 김시현, 류재원, 백하은, 박연화, 서연준, 정시향, 조현지, 김예은, 양혜운, 최은아 등 총 1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9개 학교가 참가한 단체전에서 순창여중은 예선 1~2차전에서 각각 문경서중과 인천제물포여중에 승리를 거두며 본선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6강전 문경서중을, 준결승 경남사파중을 꺾고, 결승에서 광주신광중을 2:0으로 제압하며 전국단위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이한운 교장은 “순창여중 학생들의 소프트테니스 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



와 응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순창을 대표하는 스포츠인으로서 성장하는 경험을 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2024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 상설공연

# 가족소풍

매주 토·일요일 12:00 ~ 16:30  
2024. 5. 11. ~ 26.

왕궁보석테마대표관광지(보석박물관) 일원

태권도 ZONE

피크닉 ZONE

포토 ZONE

플리마켓 ZONE

작은가족 ZONE

프로그램 안내

익산시

GREAT 익산  
IKSAN CITY